

익산시, 열사 후손과 만세 삼창

4.4만세운동 106주년 기념식... 일제강점기 시민들의 항일 의지·민족 자주정신 기려

익산시가 4.4만세운동의 합성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4일 '익산 4.4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기념관 4.4만세운동기념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익산시가 주관하고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행사다. 일제강점기 익산시민들이 보여준 항일 의지와 민족 자주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장, 보훈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 80여 명이 참석해 106년 전 익산 남부시장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의 외침을 기렸다.

행사는 전춘식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의 환영사, 전영철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축사, 독립열사 후손 인사, 헌화, 참석자 전원의 만세삼창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문용기, 박성엽, 김치옥 등 독립열사 3명의 후손이 직접 참석해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익산 4.4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열린 대규모 항일운동이다.

최대진 오산면 남전교회 목사와 문용기 도남학교 열사가 1,000여 명의 군중을 이끌었다.

전주와 군산 등 인근 지역의 독립운동 소식에 자극받은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일제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끝까지 저항했다.

이 운동은 전북 서북부 지역에서 벌

어진 대표적인 민중 항쟁으로, 익산의 항일정신을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익산시는 4.4만세운동기념공원과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해 지역민과 청소년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운영 중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4.4만세운동은 시민 스스로가 민족의 자존을 외쳤던 숭고한 역사"라며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자긍심 있는 지역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익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 기념사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오직 시민의 삶 지켜내는 데 집중해야”

정현을 익산시장,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긴급 대책회의 개최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긴급회의에 간부공무원을 소집하고 탄핵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계엄 이후 불안감이 높아진 지역 사회가 탄핵 여파로 혼란이 가중될 것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정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정치가 어지럽게 요동치더라도 시민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행정이 가깝게 다가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차분하게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흔들림 없이 민생안정을 챙길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모색됐다. 주요 안건으로 △지역 경제안정 대책 △집회·시위 안전 대응 △공직 기강 확립 △대통령 선거 일정 대비 등이 다뤄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민주당 소속 군산시의원들, “윤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된 6시간 비상계엄령은 역사의 해프닝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한 국민의 대립과 갈등, 국제 신용도 하락, 민생경제의 파탄은

오롯이 국민의 양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역사 앞에 천명했다. 이제 갈등과 불신을 견어내고 우리의 선택과 결집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했다.

내란세력의 청산과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추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

서 동토의 계절을 보낸 국민에 대한 소명이라고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풀뿌리라는 지방 정치의 초심을 무거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고 하며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면이 헌정질서에 따라 종식될 때까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윤석열 탄핵 인용, 민주주의 지키려는 국민이 승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 의원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곧바로 익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무겁고 긴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심과 헌법은, 일치했고, 상식과 힘을 헌법적 가치로, 재 확인했다”며 “이제 우리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우리의 상처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민주적 헌법 절차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 동안, 절대다수 국민들께서, 탄핵인용을 기대하였고, 또한,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들도 계신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열망, 정의롭고 상식적인나라로 가기위해 국민 모두의 소망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대선이 단순히, 대통령 한사람만,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내란동조세력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수구

집단을 청산하는 선거임이 분명하다”고 목적을 높였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우리 익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내란 세력에 맞서 싸웠던 천막 농성장에서 나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시민들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그러하여 갈등과 분열은 지양하고, 통합과 포용을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굳건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동동면민 쉼터

‘새미르휴센터’ 준공식

익산시가 동동면민의 쉼터인 ‘새미르휴센터’의 문을 열고,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본격 나선다.

시는 지난 4일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미르휴(休)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동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복지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농촌지역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미르휴센터를 조성하고, 동동면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체조·웃음치료 △바리스타 교육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에 준공된 새미르휴센터는 다목적 체육관과 마을카페를 갖춘 복합공간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 봄철 주요 도로

노후구간 재포장 사업 추진

군산시가 봄철을 맞아 관내 주요 도로 중 노후되고 파손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간을 대상으로 재포장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깨끗한 군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오래된 도로포장을 철거 및 재포장하게 된다.

재포장 대상 도로는 △작년 10월 주요 도로 노면 상태 조사에서 확인된 파손 구간 △폭설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도로 파임(포트홀)로 파손된 구간이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 도로인 공단대로, 대학로, 해방로, 외항로, 번영로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부터 가장 먼저 재포장이 시행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쪽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